

선한 일을 하되..

지난봄, 간단한 목상과 기도의 시간에 전화 소리에 조용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화곡동 아주머니'라고 간호원이 말해 주었다. 그 분은 이따금씩 주변의 어려운 환자를 데려오는 아내의 친구로 어느 개척교회 집사 직분으로 봉사하는 분이다.

치아가 아파 닷새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들지 못해 쓰러지게 된 칠순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전화였고 나는 빨리 모시고 오라는 대답으로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환자를 돌보았다.

잠시 불우한 환자를 위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면서도 인색한 나 자신의 행위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실 할머니 환자를 기다렸다.

두 시간 반이 지나서야 화곡동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면서 초라하고 쇠잔한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한쪽 볼이 크게 부어오른 상태로 문 옆 소파에 맥없이 주저앉은 모습이 무척이나 가련하게 보였다. 당장 종합 병원에 입원시켜야할 응급환자를 이 지경에까지 둔 환자의 가족들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화농성 치주염으로 화농한 부위의 고름만 우선 제거해도 환자의 고통은 크게 덜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고름을 적출 하는 진료에 입하게 되었다.

일단 국소마취를 하였다. 너무나 쇠약한 상태라 돌변적인 상태가 염려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자는 이내 맥박과 호흡이 약해지더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금방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응급처치 자세로 눕히고 심장부위에 마사지를 하고 암모니아수로 코를 자극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혈압을 측정했지만 반응은 극히 미약했다. 응급차를 부를 여유도 없었다. 우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말을 잊은 채 "하나님!"이라는 외침만이 입 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약 삼십여초가 지난 후 마지막으로 인공호흡이라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순간 내 귀에는 희희하나마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맥박이 가늘게 뛰고 미약하나마 호흡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회복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때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놀라움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광고면으로 계속)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2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9월10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교회생활로 인한 각종 제약이 싫습니다”

Q) 교리에 얽매어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내 자신이 그런 재미없는 답답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교회에 다니기가 싫습니다

A) 젊은이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젊은이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본능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삶을 보다 상향적인 쪽으로 설계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반성하면서 항상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자기 의사와 의지대로 지어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만세반석 위에 영원히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고 한 순간에 무너질 모래 위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얻어서 그에 따른 믿음 아래 일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는 뜻입니다.

한때의 젊은 기분에 의한 그런 자유방임의 삶으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일궈 낼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뛰어난 누구도 신앙심이 없이는 자기의 인격적인 완성을 도모해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젊은이의 눈에 언뜻 재미없고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한 번 관심 갖고 관찰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불변의 진리 말씀 안에서 어쩌면 젊은이보다 열 배나 더 재미있는 진짜매기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보다 열 배나 더 트인 긴 안목으로 세상과 세상 이상의 것을 꿰뚫어 내다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재미나는 자유는 한 순간에 불과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뜻대로 일궈나가는 저들의 삶은 젊은이보다 열 배는 더 성공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젊은이의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 (시 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04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계 2:12-17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나쁜환경가운데 있던 버가모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5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9월 예배 위원 >

일 자	안내.헌금	기 도	teatime봉사
9월 3	김시욱.장선주	송 정 섭	김수하.이상욱
10	이선우.조순정	김 교 섭	이영권.지윤수
17	지윤수.김 효	조 순 정	이경석.김시욱
24	김교섭.정희자	이 선 우	김성국.최윤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계획
*1년간 성경개인완독 시작합니다. 배부되는 완독일정표에따라 내년 이맘때 썸에는 성경 1독을 완수하는 기쁨을 다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2.청년기초성경공부(3번째)
*화요일(12일). *시간: 7:00pm *장소:교회
*대상: 청년중 금년도 등록자(이상욱.정재정.이미리.이성희.김수하)
- 3.중고등부 모임
*중고등부.모임을 아동부와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교사:최유나 선생
*장소: 친교실 2층 room
4. 교회연합예배와 체육대회를 위한 진행위원 모임
*일시: 9월 12일(화) 저녁 7:30 주님의 교회 사무실
*진행위원: 최윤희, 이선우 집사
5. 수요일예배
*수요일예배를 St. Stephens 교회 본당으로 옮겨 드립니다.
6.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일시: 9월 26일(화)-10월 21일(매주 화요일)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
7. 등록하심을 축하합니다.
*김영길,신경화 집사. 경민.지민
☎449-0368 ☒ 15A Merriemfield Ave. Forrest Hill.
- 7.9월의 교회력
*3일(주일) 이삭줍기 봉헌 *8월29일부터 매 화요일:청년기초성경공부
*4일(월)부터 성경완독 1년계획시작
*8일(금). '약속의 아비' 첫모임
*26(화) 장년부 기초성경공부

병원 문을 나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가누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할머니에게 불행한 사태가 났다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도 나는 과실치사로 살인자가 되겠지. 이때 조용한 깨달음이 왔다. "배꿀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가 배품을 실현하는 행위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